

배포 2026. 9. 9.(수)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9. 9.(수) 12:00

(지 면) 2026. 9. 10.(목) 조간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로 전년 대비 증가, 가해응답률 0.8%로 전년 대비 감소
- 피해 유형별로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은 증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
- 아차라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언정 대응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6개 교육청과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 조사대상 : 초4~고3 재학생 전체(390만 명) / 참여율: 81.9%(319만 명)
- ▷ 조사기간 : '26.4.14.~5.13.(4주) / 온라인 조사
- ▷ 조사내용 : '25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적·피해·가해 경험 등
- ▷ 조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조사지 개발, 조사 수행 및 분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시한다.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자기 보고식 인식조사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2026년 1차 실태조사 참여율은 81.9%로 2025년 1차 대비 0.3%p 감소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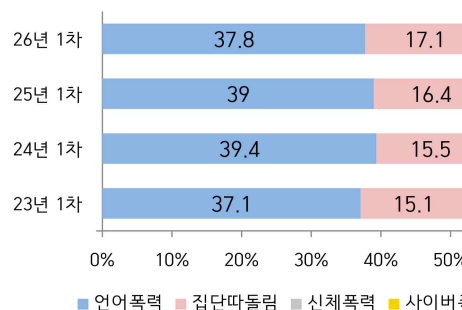
피해응답률은 2.9%로 2025년 1차 대비 증가(0.4%p)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5.7%(0.7%p↑), 중 2.3%(0.2%p↑), 고 0.8%(0.1%p↑)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피해응답률(%) 】

학교급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전체	0.9	1.1	1.7	1.9
초등학교	1.8	2.5	3.8	3.9
중학교	0.5	0.4	0.9	1.3
고등학교	0.24	0.18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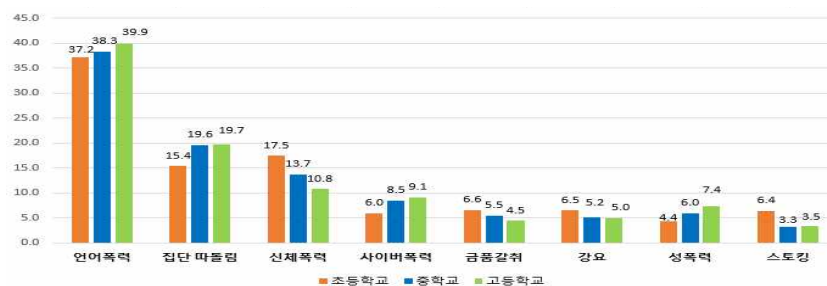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7.8%), ‘집단 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1차 대비 ‘언어폭력’(1.2%p)과 ‘사이버폭력’(0.8%p)은 감소하고 ‘집단 따돌림’(0.7%p)과 ‘신체폭력’(1.1%p)은 증가하였다.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높게 나타났지만, ‘신체폭력’, ‘강요’는 낮게 나타났다.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율(%) 】



가해응답률은 0.8%로 2025년 1차 대비 감소(0.3%p)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1.6%(0.8%p), 중 0.7%(0.2%p)은 감소하고, 고 0.1%(전년 등)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연도별 가해응답률(%) 】

학교급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25년 1차	'26년 1차
전체	0.3	0.4	0.6	1.0	1.0	1.1	0.8
초등학교	0.7	0.9	1.3	2.2	2.1	2.4	1.6
중학교	0.2	0.2	0.3	0.6	0.7	0.9	0.7
고등학교	0.1	0.04	0.05	0.08	0.1	0.1	0.1

목격응답률은 6.7%로 2025년 1차 대비 증가(0.6%p)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 11.0%(0.8%p), 중 6.8%(0.7%p), 고 2.6%(0.4%p)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다.

【 연도별 목격응답률(%) 】

학교급	'20년	'21년 1차	'22년 1차	'23년 1차	'24년 1차	'25년 1차	'26년 1차
전체	2.28	2.3	3.8	4.6	5.0	6.1	6.7
초등학교	4.0	4.8	7.3	7.9	8.5	10.2	11.0
중학교	1.6	1.5	2.9	4.4	5.1	6.1	6.8
고등학교	0.8	0.6	0.8	1.2	1.4	2.2	2.6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분석한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일상적인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 형성 경험이 부족하고 공감 역량도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우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상승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갈등이나 폭력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이 생기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보다는 교육적 해결로 유도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②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현장 의견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교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학생·교원 간담회(8.2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담회(8.24.) / 학교폭력 제로센터 업무담당자 간담회(8.26.)

참석자들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에 대하여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체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았다.

아울러, 일상적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건강하게 감정·의사표현을 하는 방법, 방어자로서 행동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초기 갈등 상황의 경우 심의나 사법적 절차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5학년도 56,880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접수 건수 중 심의로 진행된 비중은 51.7%로 증가하였다. 또한, 심의 결과 ‘학폭 아님’ 비중도 22.1%로 증가하였다.

③ 향후 정책 대응: 아차률 등 신종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강화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예방과 참여,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의 실효성 보완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최근 아차률·스파링 등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심각한 가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조치하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 8월 신종 폭력 ‘아차률’ 경보(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11호)를 발령·전파하였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이해 신종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영상 유포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단순한 신고·정보 제공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학교폭력 및 여러 갈등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으로 강화

한다. 이를 위해 갈등상황 대처, 방어행동 실천 등 구체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2026년 2학기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체험·실천 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확산한다.

* 학생 중심의 단기간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 대처 역량을 높이고 공감과 책임의 학교 실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학교('26.9월 신규)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맞벌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확대한다.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와 협력해 단위 학교의 수요에 따라 자녀 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 파견을 지원한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육적으로 해결·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2026년 3월부터 도입된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반기에는 관계회복을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심의 이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집중적인 치유와 교육을 지원한다.

※ 서울, 인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신설 추진('28.3월) / 충북 민간 위탁 운영 추진('26.9월)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제 갈등 대처 역량을 키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장	김성희 (044-203-6972)
		담당자	서기관	우연선 (044-203-6978)
			주무관	지연하 (044-203-6979)



붙임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피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비율(%)	2.9		5.7			
	명수(천 명)	91.6		56.5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전체	37.8	6.0	6.1	15.7		
	초	37.2	6.5	6.6	17.5		
	중	38.3	5.2	5.5	13.7		
	고	39.9	5.0	4.5	10.8		
가해자 유형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우리 학교 같은 반 학생	우리 학교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	우리 학교 다른 학년 학생			
	전체	48.2	29.8	8.1			
	초	48.5	28.5	9.4			
	중	48.6	31.5	5.9			
	고	45.6	33.2	6.2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학교 안 (69.6)						
	구분	교실안	특별실 방과후 교실 등	복도 계단	화장실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급사실 매점 등
	전체	28.2	5.1	16.4	5.7	9.1	4.6
	초	27.3	4.6	15.0	5.4	9.3	3.8
	중	29.7	5.6	18.6	6.2	9.0	5.1
	고	28.9	6.9	18.3	6.1	8.4	7.1
피해 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등교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전체	4.2	9.8	29.8	21.2		
	초	3.8	7.4	29.1	20.5		
	중	4.6	12.2	31.7	22.6		
	고	5.0	15.4	28.6	21.3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보호자나 친척	학교 선생님	학교 상담실 선생님	신고할 학교 익명게시판		
	전체	주위에 알림 (91.9)					
		36.6	29.5	5.7	1.1		
	초	39.7	28.1	3.7	1.1		
	중	33.7	31.4	7.5	1.0		
	고	29.8	31.1	10.5	1.0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구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전체	20.9	11.2	13.8	1.9		
	초	19.4	11.5	13.0	2.1		
	중	24.9	10.9	14.3	1.8		
	고	22.1	9.9	20.8	0.9		

□ 가해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가해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0.8		1.6		0.7		0.1	
	명수(천 명)	26.1		16.2		8.2		1.5	
가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폭력	강요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스토킹	집단 따돌림
	전체	39.7	6.9	4.8	21.3	4.4	6.4	3.5	13.1
	초	39.5	6.7	4.7	22.8	3.7	5.0	4.2	13.3
	중	40.1	6.9	4.7	19.0	5.3	8.3	2.1	13.6
	고	39.8	8.7	6.0	18.1	6.3	9.0	2.9	9.3
가해 이유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전체	초	중	고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0.6	29.1	34.0	28.6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8.0	8.5	6.6	9.1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7	1.8	1.4	2.1
	강해 보이려고					4.0	4.3	3.5	3.7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3.6	3.6	3.4	4.2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아니까					5.5	5.0	6.5	5.7
	상대방(해당 학생)과의 오해가 있거나 의견이 달라서					12.6	11.7	14.0	14.9
	상대방(해당 학생)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21.7	25.1	16.4	14.7
	상대방(해당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12.3	10.8	14.3	17.0
집 단 가해 응답 비율 (%)	구분		주로 혼자 했다			주로 여럿이 함께 했다			
	전체		54.2			45.8			
	초		58.7			41.3			
	중		45.0			55.0			
	고		53.9			46.1			

□ 목격 경험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목격 응답률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6.7	11.0	6.8	2.6	
	명수(천 명)	214.5	109.5	77.1	27.0	
목격 후 행동 (%)	구분		전체	초	중	고
	피해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33.1	32.9	32.5	35.5
	가해자(때리거나 괴롭히는 사람)를 말렸다		17.7	21.4	14.7	11.2
	주변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신고했다		17.2	18.1	16.0	16.4
	나도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1.1	1.0	1.3	0.8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31.0	26.6	35.5	36.1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으므로, 합계가 100%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수 있음.

※ 본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